

# 대학 도서관 향토자료실 발전방안

## (제주대학교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양 상 숙

### 〈목 차〉

- |                    |                           |
|--------------------|---------------------------|
| I. 서론              | (4) Missing number보충의 철저화 |
| II. 본론             | (5) 분류 및 서지작업 실시          |
| 1. 향토자료의 意義        | (6) 연차계획서                 |
| 2. 향토자료의 種類        | (7) 향토자료 이용 편의 제공 및 인식 제고 |
| 3. 소장자료의 現況        | (8) 자료수집 계획               |
| 4. 향토자료원(源)에 관한 자료 |                           |
| 5. 향토자료실의 문제점      | III. 결론                   |
| (1) 향토자료실 공간의 협소성  | * 부록                      |
| (2) 향토자료 확보의 애로점   | 1) 소장자료의 현황 세부 목록         |
| (3) 전문인력 확보의 문제    | 2) 향토자료원(源) 세부 목록         |
| (4) 수집시기의 適時性      | 3) 향토자료 수집 일지(1994년 실적)   |
| 6. 내실화 및 활성화 방안    | 4) 향토자료 수집시 양식            |
| (1) 공간의 확장         | 5) Hawaii대학(도서관)자료        |
| (2) 인원보충           | *부록은 지면관계상 생략함*           |
| (3) 예산확보           |                           |

## I. 서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의 생성을 촉진시키고 정보의 원활한 유통과 과학적인 관리가 무엇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되는 정보화사회이다.

더구나 대학도서관은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인재양성과 교수들의 연구활

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다른 정보자료는 아직도 부족한 면이 있으나 그런대로 많은 발전을 해 왔으며, 시대적으로 타 대학과의 유대 및 정보 교환형태로 원활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발간되는 자료 및 이미 발간된 자료나 선조의 혼이 배어 있는 우리 고장의 귀중한 자료가 도외유출되거나 훼손되는 등 많은 자료가 손실되어 온 것은 안타까운 사실이다.

우리 대학 도서관이 개관된 지 40여년이 지났으나, 향토자료의 소장이 빈약하여 대학발전은 물론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역연구에 도움을 주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늦게나마 그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향토자료의 내실화와 활성화 방안을 제시코자 한다.

- 지방화시대에는 지역연구(Area study, Regional study)가 더욱 중요하게 된다.
- 지역연구의 기초자료는 향토자료가 된다. 따라서 지방화 시대에는 향토 자료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 제주도는 지정학적 특성으로 인해 독특한 문화를 유지해 왔으며 또한 향토 자료가 풍부한 곳이다. 그러나 여건 조성 부족으로 총체적 체계적인 자료 수집에 미흡했다.
- 향토자료는 그 지역 정신문화의 주축이 되며, 향토자료의 확보 및 정보제공은 그 지역사회에서 깊은 신뢰감을 얻는 데 매우 중요 요건이다.
- 과거의 잘못된 역사적 사건들을 냉정히 판단하고 반성하여 다시는 후손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 향토자료는 중요한 구실을 감당한다.
- 선조들의 좋은 정신을 이어받아 아름다운 유산으로 남기고 길이 보존하는데 향토자료가 필요하다.
- 제주대학교 종합발전계획(학사부문, p.109)에서도 향토자료실의 내실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 계획의 추진 기간은 1994년 후반기부터 2001년까지로 한다. 또한 자료수집 대상범위는 제주도내의 자료 뿐 만아니라 도와 및 외국에서 간행되는 제주도에 관한 향토자료를 포함하는 것이며, 수집 대상 시기는 제주도 古書を 비롯하여 현

재 간행되고 있는 자료 및 앞으로 간행될 자료를 포함한다.

이 계획에서 다루고자 하는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향토자료의 의의
- (2) 향토자료의 종류
- (3) 소장자료의 현황
- (4) 향토자료원에 관한 자료
- (5) 향토자료실의 문제점
- (6) 내실화 및 활성화 방안

## II. 본 론

### 1. 향토자료의 意義

향토자료라 하면 그 도서관이 소재한 지역사회에 관한 자료라고 정의한다. 어느 정도의 지역을 지칭하느냐 하는 것은 그 도서관의 성질, 규모, 기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개는 그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향토라고 느끼고 향토라고 간주하는 하나의 자연적, 인문적, 사회적 범위로서, 대체로 행정구역 그 대로를 향토의 기준으로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편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 도서관은, 제주지역의 도서관의 영세성에 비추어, 도민전체를 이용자로 수용해야 하므로 제주도 전지역의 자료를 향토자료로 보아야 할 것이다. 향토자료는 그 향토를 알고 향토를 연구하는 데 길잡이가 되는 것이므로 향토에 관한 자료이면 무엇이든지 향토자료라 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향토에 관한 문헌자료, 시청각자료, 박물관자료, 기타 모든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향토에 관련된 모든 자료가 우리 도서관에 구비된다면, 특별히 제주지역에 관계된 것을 조사하거나 연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서부터 일시적인 여행자에 이르기까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제주지역의 고유한 문화발전과 산업발전 촉진에도 많은 공헌을 할 것이다. 향토자료의 수집·정리·보존이 중요시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2. 향토자료의 種類

향토자료에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어떠한 방법으로 수집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향토자료의 종류에는 여러가지 있겠으나, 크게 두가지로 나누면 현대를 중심으로 한 것과 과거를 중심으로 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본 대학 도서관은 이 두가지 자료 모두 소홀리 할 수 없다. 현대의 것으로는 이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통계, 즉 인구, 산업, 경제, 교육, 문화, 인물 등 모든 분야에 걸친 통계 자료를 포함한다. 통계를 뒷받침하는 문자 기록 외에도 사진, 녹음 등을 들 수 있다. 과거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자료란 우리 조상들이 남긴 문화유산 전반에 관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제주도민의 전 족보를 우리 도서관에 소장한다든지 현대에 아무곳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1장의 팜프렛에서부터 과거 서당에서 훈장이 가르치던 퇴색된 필사본까지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특히 지방화시대이므로 도의회 운영 전반에 관한 자료도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향토자료의 종류를 종합하면 대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국립중앙도서관 도협월보 V.14, NO.11 참조).

- (1) 향토 및 향토인물에 관한 도서, 소책자
- (2) 각급기관, 각종단체, 회사 등의 출판물
- (3) 지역출신이나 거주자중 주요인물에 관한 전기, 기록, 기사, 사진
- (4) 그 지역사회 및 인접지역의 각종인명록
- (5) 향토에 관계되는 사진, 지도, 설계도, 토지매매관계 도면
- (6) 지역사회의 출판에 관한 도서, 팜프렛, 신문, 잡지
- (7) 지역출신자의 도서, 서간, 일기
- (8) 고서, 고지도, 고문서, 고기록
- (9) 향토관계 슬라이드, 필름, 회화, 비문, 비석
- (10) 탁본, 민요레코드, 민속예능에 관한 영화필름, VTR, 녹음Tape 등

## 3. 소장자료의 現況

우리 대학 도서관은 제주지역 향토자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66년 4월 18일

에 향토자료실을 설치하여 자료 수집에 힘써왔으나, 여러가지 여건의 부족으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다가 '1994년 6월부터 총력을 기울여 자료수집에 힘쓴 결과 상당한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미흡하나마 애써 모은 자료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고서 : 濟州邑誌(광무3년)외 282책
- 일반도서 : 남국의 신화 외 2,479권
- 간행물 : 월간 관광제주 외 2,740권
- 소장자료 목록(세부목록 별첨)

서명	편저자	출판사	발행년도	주요내역	보관상태

#### 4. 향토자료원(源)에 관한 자료

우리 도서관은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자료의 출처를 찾기 위하여 헤매고 그래도 찾지 못하여 포기한 경우도 더러 있었다. 이를 감안하여 앞으로 자료의 수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향토자료원을 다음과 같이 밝혀 열거한다.

- (1) 제주대학교
- (2) 제주도청 및 산하기관
- (3) 제주시청 및 산하
- (4) 서귀포시청 및 산하
- (5) 북제주군청
- (6) 남제주군청
- (7) 제주교육청 및 산하
- (8) 제주시교육청 및 산하
- (9) 서귀포시교육청 및 산하
- (10) 북제주교육청 및 산하
- (11) 남제주교육청 및 산하
- (12) 도외 및 기타자료원

\* 세부목록 생략 \*

## 5. 향토자료실의 問題點

향토자료실의 문제점은 곧 도서관의 문제점과 같은 맥락이다. 도서관은 적절한 시설과 이를 수반하는 자료와 운영 예산, 관리를 위한 인원이 4대 필수조건이다.

그러나 우리 도서관은 이러한 조건이 모두 미흡한 편이다. 여러가지 선행되어야 할 도서관 선진화 사업이 미루어지는 편이다. 즉, 대학도서관인 우리 도서관은 외형상으로는 대학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쉽게 말하지만, 대학의 모든 정책결정에서 뒤처지고 예산 지원 선행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면에서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 (1) 향토자료실 공간의 협소성

우리 도서관의 향토자료실은 위치가 자주 바뀌고 있다. 도서관의 전체적인 관리면에서, 장소 협소로 인한 이동이 잦다. 다른 자료실의 적절한 공간 확보때문에 향토자료실이 불가피하게 이동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향 ??? 자료실이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의 전체적인 공간이 먼저 확충되어야 한다.

### (2) 향토자료 확보의 애로점

구입 자료는 시중 서점을 정해서 제주도 관련자료를 모두 모아 납품토록하고 대금을 지불하는 방법으로 3-4부 혹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10부씩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향토자료는 고서, 고문서, 고기록이어서 수집에 상당한 애로가 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신간 자료, 즉 다양한 기관, 단체, 혹은 개인이 발행하는 다양한 종류의 자료들은 시중판매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발행 정보파악도 어려울 뿐 아니라, 면밀한 계획 아래 적극적인 수집활동을 벌이지 않고서는 자료 확보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보 파악과 자료수집 활동을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과 인원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더욱이 이런 각종 자료는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두껍고 얇고, 크고 작은 여러 가지 형태의 것들을 수집하였다 하더라도 그대로 이용자에게 열람시키기 곤란한 것이 많다. 그러므로 이 낡은 것들은 과학적인 방법에 의하여 복사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제본해서 이용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것이 허다하다. 이러한 공공적(公

共的) 의의를 가지는 업무는 계획적이고 영구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도내에 산재한 자료 수집에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겠지만, 또한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 산재해 있는 자료 및 외국에 산재해 있는 자료수집에도 도서관 네트워크를 통해서 파악·수집하는 업무를 병행 해야 할 것이다.

### (3) 전문인력의 확보 문제

이제까지의 향토자료실은 독립운영되지 못하고, 다른 자료실의 공간을 이용하여 소극적인 방법으로 수집하면서 명맥만 유지해 온 셈이다. 적절한 시설, 활동적인 인력, 그에 따르는 예산의 뒷받침이 모두 부족한 탓이다. 향토자료확보를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를 파악해야 하고, 파악한 정보를 가지고 순발력있게 적기에 수입해야 하며, 수집한 자료를 체계, 형태별로 이용자가 접근하기 쉬운 방법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보자료 검색을 안내하기 위해서 향토자료실은 다양한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이 최소한 3명은 보충되어야 하며, 이 업무담당자는 인사이동규칙에서 제외함으로써 지속적인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지속적으로 근무하지 못하고 자주 바뀜으로 인해서 소장자료에 대한 검색이 원활치 못하고 이용자의 요구에 만족한 봉사를 제공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향토자료실은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인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근무자의 경험을 축적하고 그 축적된 경험으로 운영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이는 도서관 전산화만으로도 충족시키 못하는 일이라 판단된다. 그러므로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자료 수집과 이용자 봉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 (4) 수집시기의 適時性

앞에서 언급했듯이 전문사서 한 사람이 고유 분장업무를 미뤄둔 채 1994년 7월부터 약 6개월 동안 향토자료 수집 특별추진기간으로 정하여 수시 전화연락과 지방순회를 한 결과 각종 자료 3,000여책을 수집할 수 있었다. 그 가운데 쉽게 볼 수 없는 귀중한 자료들을 접하면서 보람을 느낀적도 여러번 있었다. 한편으로 자료로서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것들도 더러 있었으나, 향토자료 보존이란 측면과 낱장 하나라도 언젠가는 소중한 자료가 된다는 관점에서 수집했다.

현시점에서든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감이 있다. 이용자가 찾는 자료를 갖추지 못한 경우, 편저자나 발행처로 수소문해보아도 여분이 없는 경우가 태반이며 심지어는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도 허다하다. 이러한 경우 여러 번의 확인을 거쳐 부탁을 하고 대출받아 복사한 다음 원본을 돌려줘야 하는 번잡하고 시간소모가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런 면에서 출처와 발행시기가 일정치 않은 도내의 각종 향토자료 수집은 꾸준히 작업이 진행되어야 하며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다.

## 6. 내실화 및 활성화 방안

제주대학교 종합발전계획(학사부문)에서도 강조했듯이(p.78, p.109, p.113) 우리 대학을 특성화하여 21세기의 개방화, 세계화 추세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지역문화를 기본으로 연구해야 한다. 지역문화를 연구하려면 향토자료실을 내실화,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향토자료실의 내실화, 활성화 방안을 고안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공간의 확장

향토자료실은 한번에 대단한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한다고 해서 계속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계획 아래 지속적인 지원을 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아울러 향토자료실의 중요성이 아무리 강조된다 해도 현 도서관 시설에서는 원만한 공간확보가 불가능하다. 이런 면에서 「향토자료관」을 신축하는 방안도 구상해 볼 만하다.

### (2) 인원보충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구석구석을 탐방하여 자료의 귀중 여부에 관계없이 자료를 구입하고 향토자료를 원활하게 수집하기 위해서는 인원 보충이 절실히 요구된다. 출판정보와 소재 파악, 그리고 정리업무를 전담할 직원 1명, 직접수집에 나설 적극적이고 기동성있는 직원 1명, 수집자료의 정리보조와 이용자 봉사 전담 직원 1인 등 3인은 최소한 보충해야 향토자료실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다. 한편, 도서관 직원 전원이 향토자료 수집 요원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



져야 한다.

### (3) 예산 확보

앞에서 열거한 시설과 인원이 보완되었다 해서 향토자료실운영이 원활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자료확보를 위해서 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부딪치는 것이 활동비 문제다. 여비나 상황에 따라 답례품 혹은 식사를 제공할 경우의 업무추진비, 빌려다 복사하는 경우 복사비, 제본비, 그리고 기타 부대비 등 연간 특별 예산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일례로, 하와이대학에서 제주도내 문헌 수집(복사)을 위해서 어느 개인에게 위탁해서 연 500만원씩을 장기 투자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우리 도서관이 가까이 있는 제주향토자료 수집을 태만히 한다면, 앞으로 10년 후에는 하와이대학에서 제주도자료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다.(「부록」참조)

### (4) Missing number 보충의 철저화

이제까지 우리 도서관은 수동적이거나 단행본 2,479권 도내 간행물 2,400여책, 교내 간행물 340책을 수집하여 이용자에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인력이 없이 적극적인 수집을 못하다 보니, 결호가 발생하더라도 그때그때 보충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지난 1차 수집기간 동안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보충이 되지 않아 필요에 따라 대출받아 복사 해야 했다. 대출받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불편하더라도 자체 복사기를 신고가서 복사하는 방법으로 보충해야 할 것이다. 정확한 정보파악으로 제때에 확보하지 못할 경우 이런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이다.

### (5) 분류 및 서지작업 실시

향토자료의 정리에는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 언급한 바와 같이 자료의 종류가 매우 많고, 특히 고서나 고문서와 같은 묶은 자료가 있는 반면 최근 출판자료도 자료내용에 따라서 책의 크기, 부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다양한 형태의 자료들을 일정한 틀의 분류법에만 의존하는 것은 효율적이다. 고서나 고문서에 대한 서지학적 지식 이외에 정리업무에 대한 지식을 겸비하여야 한다. 또한 논문인 경우 모든 목록이 특별히 개발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지작업

을 해야만이 이용자의 요구에 즉시 답변할 수 있을 것이다.

- 향토자료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용역 작성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교내신문·방송 및 도내 신문지상을 통하여 취지와 협조를 당부한다.
- 본 도서관 직원을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일정한 기간 파견하여 각종 서지적 지식을 습득케하여 참고봉사에 임하게 한다.

(6) 연차계획서

항목 \ 기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비고
	전반기	후반기	전반기	후반기							
결호보충											
자료수집											
제본·정리											
논문D/B											
자료실확충											
인원보충											

(7) 향토자료 이용편의 제공 및 인식제고

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濟州資料目錄叢書” 제1권(제주대학교편)을 발간하고 제2권, 제3권등을 속간한다.
- ‘개교기념행사인 “아라祝典”기간중, “校内刊行物展示會”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 한라문화제 기간을 이용하여 “濟州資料展示會”를 개최한다.

(8) 자료수집 계획

(가) 자료생산 현황 파악(분포현황 도내·외)

도내 관공서 및 주요기관수 302, 행정 리·동수 203(리172, 동31) 각종학교수 312(유,초,중,고,전문대,교대,) 총 817개중 50%에 해당하는 400여 기관 단체를 서면 및 전화 또는 현지방문하여 수집, 기증에 대한 정보 입수에 주력하고, 수증절차와 예산문제 등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수서과의 협조 지원을 받아 수증에 노력해야 한다.

(나) 향토자료 소지자의 매매 혹은 기증 불허로 확보하지 못하는 자료에 대해서 영인복사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확보토록 한다.

(다) 제주도 인쇄공업협동조합 또는 도내 45개 인쇄 업체를 방문, 도내관공서 및 주요기관 단체, 행정리·동, 각종 학교에서 발간하는 인쇄물 등을 수집한다. 이를 위하여 단위 인쇄업체에 우리 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보관함을 별도비치 인쇄물 종류별로 발간즉시 1-2부 정도 보관함에 수집 토록 의뢰한다.

(라) 특히 도내기관 및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 교지등 본향토자료실에 비치되어 있는 자료중 결호파악을 철저히 하여 결호가 없도록 결호수집에 주력한다.

(마) 향토자료중 일정한 정가 없이 귀중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자료 수집자가 선구입 후결재하여 구입 한다. 단, 자료가격에 대한 규정은 자료선정위원회 구성 및 구입에 관한 관리지침에 준한다.

예) “5만원 이하, 10만원 이하 ”

(바) 제주도 古書(해방 이전)에 관해서는 “濟州道古書에 관한 研究”가 校内政策研究課題로 선정되어야 하며, 그 연구결과에 따라서 古書수집을 조직적, 체계적으로 수행한다.

(사) 교내 유관기관(예 박물관, 탐라문화연구소)과 도내 도서관들과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향토자료를 수집한다. 이를 위해서 각 도서관 향토자료 담당자와 협의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간담회 등도 개최할 필요가 있다.

### Ⅲ. 결 론

1. 지정학적으로 특수한 위치에 있는 제주지역에는 독특한 고유문화가 형성되면서 특이성을 지닌 향토자료가 많다. 이를 수동적인 자세로 수집운영하던 것은 이제 까지는 가능한 일이었으나 날로 폭주하는 정보량을 수동적인 자세로만 수집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다.
2. 향토자료는 다가오는 21세기의 개방화.세계화의 흐름에 맞추어가야 할 대학의 주요 연구대상이며, 지역사회개발과 국가발전에 근간이 된다. 그러므로 향토 자료의 수집보존은 시대에 맞게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3. 이제까지 여러가지 측면에서 뒤쳐진 향토자료실의 내실화·활성화를 위해서는 하여 문헌정보의 다각적인 수집과 보존, 정보화를 위한 시설구조, 인원보충, 예산확보가 마땅히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4. 현 도서관 시설은 신축당시 계획보다 1층을 축소한 시설로서 공간 부족을 절감하고 있어 향토자료실 확보에 어려운 형편이므로 향토자료관 시설이나 도서관 신증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5. 향토자료의 원활한 수집과 자료제공을 위해서는 출판정보와 소재파악, 탐방수집업무 전담직원 1명, 수집자료의 분류, 복사·제본업무 전담직원 1명, 색인·서지작업 등 정리와 이용자 봉사 전담직원 1명 등 최소한 3명의 인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6. 출판정보 파악, 탐방수집, 도내에서 개최되는 각종세미나 학술회의 참석 등을 위한 예산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7. 제주를 연구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려면 제주대학교 도서관의 향토자료실을 이용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곽진용. “향토학교와 학교도서관”, 도협월보, 제7권 제2호(1966)19-21
- 김삼룡. “향토자료의 수집과 보존에 관하여”, 도서관 제32권 제5호(1977)10-14
- 박치욱. “향토자료의 수집, 보존, 관리와 그 문제점”, 도협월보 제13권 제8호(1972) 7-11
- 백 린. “나의제언”, 도협월보 제12권 제9호(1971)16성경택. “우리나라 서지활동의 근황”, 도협월보 제15권 제10호(1974)18-21
- 신학균. “국립중앙도서관에 있어서의 고서수집과 관리”, 도서관 제23권 제6호 (1968)3-6
- 양태진. “한국고문헌의 지역적 분포 고찰”, 도협월보 제18권 제9호(1977)18-19
- 이금석. “도서관P.R”, 도협월보, 제3권제5호(.962)9-14
- 이봉순. “자료센터로서의 학교도서관”, 도협월보, 제5권 제3호(1964)19-21
- 이택준. “도서관자료 수집의 효과적인 방안”, 도협월보, 제14권 제11호(1973)20-26
- 전영래. “향토자료 보존의 의의와 방안”, 도서관 제32권 제5호(1977)10-14
- 조상현. “지역사회에 공공도서관을 심자”, 도협월보 제7권 제4호(1966)7-10
- 천해봉. “서지와 그사업의 중요성에 대하여”, 도협월보, 제10권 제8호(1969)7-10
- 천해숙. “지역사회의 독서생활과 도서관”, 도협월보, 제1권 제7호(1960)4-8
- 최순자. “대학 도서관의 자료선택 실태와 문제점”, 도협월보 제15권 제3호(1974) 13-16
- 하용태. “향토자료의 蒐集정리고찰(학교도서관에 있어서)”, 도협월보, 제5권제10호 (1966)18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정보관리 편람” 한국, 도서관협회, 1994.